

정월 열 나흘날 저녁 무렵, 골목길을 들어서서는 아낙의 얼굴엔 노을빛 같은 기쁨이 출렁거린다.

한 손엔 시장바구니를, 다른 한 손엔 대나무로 만든 예쁜장한 복조리를 들고 있었다. 복조리를 들여다보는 그녀의 모습이 몹시 흡족한 표정이다. 한 해 동안 그 복조리로 인해 온 식구들이 다복할 것이라는 소망에서 오는 만족감이 그녀를 저토록 즐겁게 해주고 있나 보다.

우리에게는 신정이든 구정이든 편하게 주고받는 덕담이 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덕담을 주고받는 사람들마다 입가에 모두 웃음꽃이 핀다. 누구나 복 받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리라.

누구나 복을 누리며 살고 싶어해

‘복’이란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담겨있다. 남의 복을 빌어 주는 축복(祝福), 흐뭇하도록 만족감을 주는 행복(幸福), 많은 복을 누리는 다복(多福) 등이 있고, 수(壽), 부(富), 강령(康寧), 유효덕(攸好德), 고종명(考終命)을 뜻하는 오복도 있다.

인간은 누구나 복을 누리며 살고 싶어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복을 누리는 기쁨보다는 복을 받기까지의 과정과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난 후의 삶의 모습일 게

다.

일곱 색깔의 신비하고 화려한 무지개를 만져보고 싶어 하던 한 소년이 무지개가 앞산에 있는 것 같아 헐레벌떡 가보았더니 또 건너편 산에 걸쳐 있어, 하루 종일 무지개를 쫓아다가 지쳐서 결국 죽고 말았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복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된다.

흔히들 용꿈을 꾸었거나 돼지꿈을 꾸면 재수가 좋고 복이 굴러 들어올 것이라고 좋아하며 그런 꿈을 꾸는 날 아침에는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설령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돈이 그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줄까?

금년은 특히 다시 굳세게 일어설 수 있는 기를 품은 흑룡의 해라고 좋아한다.

그러나 행운이나 복의 관념을 부(富)나 소원성취(所願成就)의 차원에서만 생각한다는 것은 재고해 보아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다.

불우한 사람들을 도우며 남에게 베품과 나눔을 통해 맛보게 되는 기쁨 또한 얼마나 귀하고 값진 복인가.

복은 맘을 흘리며 노력할 때 결실로

얼마 전, TV에서 아프리카 원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에게 어두운 문명을 일깨우고 봉사하는 젊은이들의 맘 흘리는 모습을 볼 기회가 있었다. 그들의 건강한 웃음을 보면서 참된 복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았다.

황연옥 칼럼

시인, 교사



복을 비는 마음

“흔히들 용꿈을 꾸었거나 돼지꿈을 꾸면 재수가 좋고 복이 굴러 들어올 것이라고 좋아하며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돈이 그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줄까?”

나는 가끔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을 때에 ‘밀레’의 명화 〈만종〉을 생각하게 된다. 농촌의 들녘에서 일하던 부부가 저녁 황혼 무렵,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에 하던 일손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마주서서 숙연하게 기도하는 그림을 보며 진정한 행복이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곤 한다.

모두가 자신의 위치에서 맡은 일에 충실하고 어려움을 이기며 맘을 흘리며 노력할 때 우리가 바라던 복은 아름다운 결실로 안겨오지 않을까?

정월 대보름날, 햇볕놀이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일상의 삶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

기고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로 가정의 안전을

매서운 찬바람은 올 겨울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철은 아무래도 화기취급이 증가하고 난방 및 전열기구 사용도 늘어 화재발생의 위험이 높다. 화재통계를 보아도 알 수 있는데 12월에서 2월까지의 겨울철 화재가 전체 화재 발생 건수의 약 40%를 차지한다. 겨울철에 특히 화재예방에 신경써야함은 다들 잘 알고 있다. 오늘은 작년 강원지역 화재통계를 보며 우리가 알아야할 한 가지를 짚어 보고자 한다.

최근 3년 대비 2011년 화재건수가 21.8%나 줄었음에도 주거시설의 화재는 32건에서 39건으로 21.9% 증가한 사실

이고, 그중 31건이 단독주택이라는 것이다. 전국적인 통계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경보설비와 소화설비 등 소방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그 외의 일반주택은 지금까지 별다른 규정이 없었다.

이런 현실에 따라 올해 2월부터는 주택에도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의무화 된다. 신축주택의 경우 2월5일부터 적용되며, 기존 주택은 5년의 유예기간을 주어 2017년까지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주택 화재의 경우 음식물조리중 외출이나 수면, 담배꽂초의 잔불, 오래된 전선에 의한 누전,합선 등 평소 예방할 수 있는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심야 취침시간에 많이 발생하다보니 화재를 조기에 인식하지 못함으로 유독가스를 마시게 되어 인명피해를 보는 경우가 다반사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아직 홍보가 부족해 일반인이 모르는 경우는 많은데 화재발생시 발생하는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줌으로써 주변에 있는 사람의 신속한 대피를 가능하게 해주는 장치로 설치가 간단하고 가격도 저렴하여 일반인이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소방기구이다. 미국 등 선진국은 이미 보급률이 90%가 넘는데 화재로 인한 물질, 인적 피해를 50% 가량

감소시키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강원도에서도 200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을 시작으로 일반주택에 대하여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보급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올해에도 더 많은 가구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려 한다.

화재는 예고 없이 잠시 방심할 때 갑자기 찾아온다.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더라도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소화기나 단독경보형감지기 같은 기초소방시설은 갖추길 권한다.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관심과 실천임을 당부드린다.



김륙기 소방위
속초소방서 거진안전센터장

겨울철 알레르기 예방

겨울만 되면, 감기와 같은 증상과 붉은 색의 원인 모를 두드러기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겨울철 알레르기를 의심해 보자. 처음에 가볍게 여기다가 방치하면 증상이 점점 심해져 완치가 어렵고 치료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예방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며, 기상청이 발표하는 ‘감기기상지수’와 ‘피부질환가능지수’를 참고하는 것도 많은 도

움이 될 것이다. (기상청 홈페이지 <http://www.kma.go.kr> 날씨 → 생활과 산업 → 보건기상지수)

알레르기 비염 : 콧물, 재채기, 코막힘 등 처음증상이 감기와 비슷한 반면 수개월에서 1년 내내 증상이 계속될 수 있다. 방치하면 중이염, 결막염, 축농증, 천식, 성장장애 등의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

예방법 : 실내공기의 습도를 40~50%

유지하며, 습도가 낮을 경우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빨래를 실내에 걸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환기를 자주 시켜주어 실내 공기의 오염을 줄이고 곰팡이와 해로운 세균의 오염도를 낮추어야 한다.

한랭성 두드러기 : 평소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하나 갑작스럽게 피부가 추위에 노출 될 경우 생겨난다. 노출된 피부에 가려움증이 생기고, 피부가 붉게 변하면서

부풀어 오르게 된다. 민감한 사람은 찬 음식만 먹어도 혀와 기도가 부어 호흡이 곤란해지기도 한다.

예방법 : 알레르기 비염과 같이 실내 습도를 40%이상 유지한다. 실내온도를 18~20℃로 유지하며 목욕물의 온도 또한 따뜻한 물에 하는 것이 좋다. 외출시에 목도리나 마스크를 착용하여 노출될 수 있는 피부부위를 줄이고, 평소 물을 충분히 마셔 몸속 수분 또한 일정 유지 시켜주어야 한다.

〈 ‘하늘을 친구처럼, 국민을 하늘처럼’ 속초기상대 제공 〉